

100년만의 귀환...홍범도 장군의 생애 광주서 만난다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문화관서 31일까지 유해 봉환 기념 특별전
기사·사진·청원서 등 자료 다양...18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

지난 15일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연해주 이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서거한 지 78년 만에 이뤄진 유해 봉환이었다. 특별기를 통해 서울 공항에 도착한 홍장군 유해는 16-17일 일일인 참배를 거쳐 18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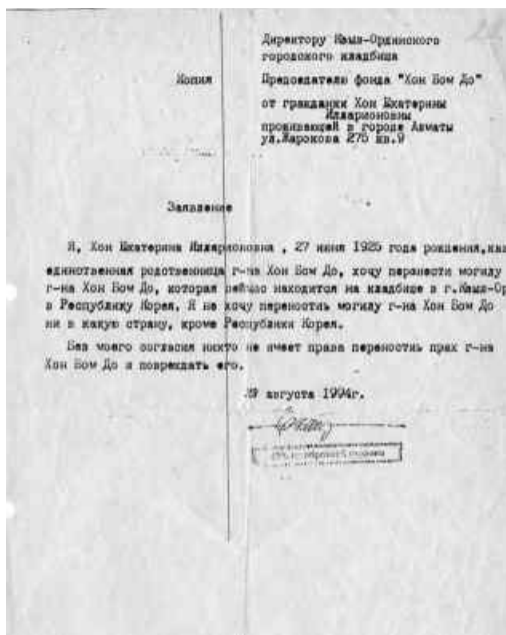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기념해 광산구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홍범도 특별전(31일까지)이 열리고 있어 화제다.

고려인문화관을 찾은 15일, 특별전 소식을 듣고 찾아온 고려인 동포와 지역 주민들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떤 이들은 홍범도를 '장군'으로, 어떤 이들은 '독립군 대장' 또는 '의병장'으로 불렀다. 직함을 떠나 그들의 말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홍범도에 대한 경외가 담겨 있었다.

전시장에는 홍 장군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비치돼 있었다. 재소 고려인 한글신문 '고려일보'에 실린 홍범도 관련 기사를 비롯해 홍범도가 새 아내 이인복과 그녀의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분처와 자식들은 모두 일경과 일본군에게 죽음을 당했다), 홍범도에 대한 고려극장 인민배우 리함덕의 육필 회상기 등 의미있는 자료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유일한 손녀 홍 예가씨(1925년생)가 홍범도 재단과 크즐오르다 중앙묘역 관리소에게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봉환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1994년 8월 29일)가 눈에 띈다.

홍 장군은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 등과 합세해 일본군을 대규모로 몰살한다. 이른바 청산리 대첩을 이끈 것이다. 1922년에는 극동민족대회에 고려혁명군 대표자로 참석해 레닌



홍범도의 손녀 홍 예가씨(1925년생)가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봉환할 것을 요청한 청원서.

과 회견을 한다.

홍 장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은 1937년이다. 소련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이 가시화하자, 한인들의 스파이 활동을 경계했다. 당시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으며, 이때 홍 장군도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진다.

전시장에서는 홍범도 묘역 단장과 관련한 신문 기사(고려일보 1996년 5월 25일)도 만날 수 있다.

"홍 장군의 묘역은 당초 5평 규모였으나 한국 정부 및 알마티 한인상사 등의 후원금 1만6500달러



일제강점기 청산리·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에 봉환된 것을 기념해 16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그의 생애를 담은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및 크즐오르다 현지 동포들의 자재 지원, 노동력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 110여명 규모에 출입문, 진입로 개설, 홍상의 좌대, 2개의 비석, 안내판 등을 새로 설치하고 울타리 및 바닥 보수 등을 새로이 단장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홍범도 장군 동상 앞에서'라는 리상희 평론가의 시가 실린 고려인 종합지집 '꽃피는 땅', 연극 '홍범도'가 제작된 과정과 배경을 러시아로 정리한 '소비에트 고려극장' 등은 문학을 통해 홍 장군의 삶과 정신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연그룹 병원장들이 낸 회생절차 폐지 결정

광주 청연 메디컬 그룹 병원장들이 개인적으로 낸 회생신청을 법원이 폐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01 단독(권민재 판사)은 최근 청연한방병원 대표위원장 이모(42)씨와 그의 부인, 서광주 청연요양병원 대표위원장 정모씨, 수원청연요양병원 대표위원장 고모씨 등 4명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들이 법원에 법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만 200명이 넘고, 법원의 세무법인 조사 결과 이씨의 부채가 172억 8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에 대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신청절차 이행이나 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로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연의 이 대표위원장은 "기존 회생절차에서 조건변경에 따른 형식적인 폐지일 뿐 다시 회생절차는 진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상무분관이 회생절차에 의해 매각됐고, 매각이후 임대차를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매입을 한 건설사가 임대차를 거부함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담당 상무분관을 제외시키는 안으로 다시 회생신청을 진행할 예정이고, 상무분관에 대해서도 매각한 건설사와 협상을 통해 기존 회생절차의 회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입원...혈액검사 받아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

전두환(90)씨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6일 전씨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3일 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VIP 병실에 입원했다. 이에 앞서 전씨 측은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전씨의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 측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광주법정에 다녀온 이후 식사에 입을 대지 못해 의사가 방문해 수액을 맞는 등의 처치를 했음에도 차도가 없었다"면서 "13일 오전까지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이상으로 혈액 검사 등을 받은 것은 알고 있으나 검사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 "건강 이상의 여부는 확인되

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참석해 인정심문을 진행한 뒤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씨가 퇴정 시간 뒤 재판을 진행했다.

전두환 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항소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재판부가 이미 신속한 재판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전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 당사자가 생존해 있을 때 법의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탱크로리 차량서 염산 누출

여수서...별다른 피해는 없어

16일 오전 7시 30분께 여수시 화지동 여수산단 내 한 주유소에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에서 염산이 누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소방은 염산 누출 부위를 막고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이 사고로 염산 약 10 l 가 유출됐으나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염산을 실은 이동탱크 차량 아랫부분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고, 탱크로리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조규연 5·18구속부상자회 신임회장 직무 정지

선출 과정 결격 사유로

5·18구속부상자회 조규연 신임회장이 선출 과정 상의 결격 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다.

5·18구속부상자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규연 회장에 대해 기존 집행부가 법원에 제출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5·18구속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명 정지 및 임시총회 개최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부상자회의 지난 6월12일자 총회는

총 회원 1883명 중 1554명의 주소 등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961명(등기우편 814명, 직접 전달 84명, 문자메시지 63명)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해 총회의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신임회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결국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여전히 문흥식씨이고, 문씨가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당시 수석부회장인 구성주씨가 직무를 대행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